

제 35 호 시험 평가서

일반적으로 교수님께서 시험 결과를 단 하나의 숫자(점수)로 압축합니다. 채점된 시험지를 되돌려주면 학생들의 눈은 일제히 첫 장에 적힌 그 점수로 향합니다. 시험지를 한번 쓱 훑어보고, 혹시 교수님께서 점수를 제대로 주셨는가, 또는 점수가 제대로 합산되었는가 따져 봅니다. 아무 이상이 없으면 가방 속에다 넣습니다. 가끔 (점수가 매우 나쁘면) 시험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기도 하지요.

96점...으쓱 으쓱! 78점...재수 더럽게 없네. 62점...교수님이 무지 짜다! 35점...난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자기의 시험점수에 나름대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만점을 받지 못했으면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체계적으로 알려하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남 탓이나 불운으로 돌려버립니다. 이런 학생들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시험의 “발전지향적“ 요소를 활용하기 위해 의욕적인 교수님께서 시험지 귀퉁이나 한쪽 옆에다 코멘트를 적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지가 많을 때엔 매 시험지마다 한 두 마디씩만 적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만 있을 뿐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코멘트를 시험지에 일일이 적는 대신 자주 쓰는 코멘트를 나열한 <시험 평가서>를 미리 준비합니다. <시험 평가서>에는 교과 내용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복습해야 할 페이지를 알려줍니다. 시험이 “문제풀기“인 경우, 미숙한 “문제풀기“ 테크닉에 대한 코멘트를 하기도 합니다. 열역학 <시험 평가서>를 예로 들겠습니다.

열역학 <시험 평가서>

1. 교과 내용

O 열역학 제1법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Ch. 2 Sec. 3 ~ 5

O phase diagram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Ch. 3 Sec. 2 ~ 4

○ 열역학 제1법칙을 SSSF에 응용하지 못합니다. Ch. 4 Sec. 1 ~ 3

○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수식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Ch. 6 Sec. 3 & 7
등 10 가지 항목 정도.

2. 문제 풀기 테크닉 (나쁜 습관)

○ 문제(주어진 정보)를 주위 깊게 읽지 않았습니다.

○ “과정”(assumption)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 계산된 답이 합리적인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 단위를 혼동하거나 무시했습니다.

등 6 ~ 7 항목 정도.

이렇게 <시험 평가서>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채점할 때 해당 사항을 체크(ü)하는 데에 한 학생당 30초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시험지가 100장이라도 한 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험 평가서> 밑에 교수님 친필로 Excellent, very good, 시험 점수가 나쁠 경우 Please see me라고 간단하게 적으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시험 평가서>를 시험지와 함께 되돌려 주고 학생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점수로 향했던 학생들의 눈이 <시험 평가서>를 보는 순간 휘둥그래집니다. “역시 학생들을 위하시는 교수님이다!”하는 표정을 얼굴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시험 평가서>를 활용한 이후 한번도 점수 더 달라고 조르거나 따지고 드는 학생이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시험의 초점을 ‘점수’ (결론)에서 ‘학습’ (과정)으로 옮기는 데에 성공한 셈이지요.

이렇게 한 시간 정도 투자하면 연구실 도피할 필요 없으니 시간 벌고, 학생들과 점수가지고 신경전 벌이지 않으니 정신건강에도 좋고, 학생들이 존경하니 강의 평가 점수도 올라가고...